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조 순 욱

채 수 은[†]

강릉원주대학교

한국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 성격과 양육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과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에게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성격과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페르소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서는 아들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성격이, 딸은 완벽 지향 페르소나 성격이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었다. 아들에게는 비판적인 페르소나 성격이, 딸에게는 체면지향적인 페르소나 성격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강함지향 페르소나 성격은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양육행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자녀 성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버지, 페르소나, 아버지 양육행동, 한국대학생, 성차

† 교신저자: 채수은,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교직과정, 강릉시 죽현길 7
E-mail: schae@gwnu.ac.kr

저 출산 현상, 어머니의 역할 과부하, 아버지의 소외 등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문적·실천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친구 같은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Hyun, Nakazawa, Shwalb, & Shwalb, 2016;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정, 진미정, 2010). 실제로 최근에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35.8%의 남성들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놀이 친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김경래, 2011).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자녀와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버지 역할의 효과적 수행과 관련되는 변인은 아버지의 배경요인, 가정적 요인 및 자녀의 특성 등이 있다.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본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Meuwissen & Carlson, 2015; Samuels,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Ponnet, Mortelmans, Wouters, Van Leeuwen, Bastaits, & Pasteels, 2013), 자아 존중감(Seçer, Gülay Ogelman, & Önder, 2013), 우울증(Luoma, Puura, Mantymaa, Larva, Salmelin, & Tamminen, 2013) 등이 아버지의 역할과 육아 개입 수준에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된 아버지 문화로 인하여 자녀와 정서적인 접촉을 원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불일치로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Lamb, 2004).

아버지 역할과 그에 따르는 수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 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Samuels, 2016). 경험연구에 따르면, 이전세대에 부모-자식 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모의 성격은 부모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순환구조를 보인다(Smulders, 2014). 이처럼 성격은 개인의 선천적 경향과 환경적 영향을 받아 개인마다 고유한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 또한 행동의 패턴이 격려와 지지를 받거나, 거부받을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외적 인격으로 발현된다(심혜숙, 박순환, 2004).

국내 부모 양육행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있어 특정한 기술보다는 성격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예, 전현진, 김영희, 2013; 오수희, 1989) 아버지의 성격과 양육행동 간의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성격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간 한국 아버지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페르소나 성격 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흔히 가정과 사회 두 가지 활동 반경에서 아버지들은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보이기 쉽다. 아버지들은 가정 내에서 주로 어떤 페르소나 성격을 나타내며 페르소나 성격은 양육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녀의 지각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페르소나성격 특성을 통해 아버지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변화하는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은 부모의 인성이나 기질, 스트레스 수준과 더불어 성별과 같은 자녀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elsky, 1984). 또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차이는 자녀의 성차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지는 부모 양육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Zahn-Waxler, Shirtcliff, & Marceau, 2008).

자녀의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는 딸과 아들에게 다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보고가 많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딸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예컨대 민주적,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연미희, 1998)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양육행동-아들 간 관계를 조명한 김관웅, 이인수(1998)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딸일 때 보다 아들일 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가 아들일 때 딸 보다 생활지도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았다고 보고한다. 또 딸이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 아버지의 역할행동 수행이 더 높았으며, 특히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신체적 역할영역에서 더 높았다(이성희, 한은주, 1998).

전반적으로 볼 때 아들에게 아버지의 양육 참여 비율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문혁준, 1998; 양미경, 1996), 아버지는 딸 보다 아들에게 더 거칠고 요구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주, 1996). 이처럼 아들-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질과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채진영과 권혜진(2010)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 노릇의 장점을 모방하여 현재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습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들에 대한 아버지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딸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모델링할 만한 경험이 부족해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다른 양육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녀가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방식을 반복하여 경험함으로써 동성부모의 행동모방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 나, 이승연, 2015).

아예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윤서영, 1998; 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의 성별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의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과는 무관하거나(윤서영, 1998; 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의 기대와 행동 간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으며(박영애, 인영옥, 1998) 일본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권위적 부모 양육 행동 질문지(Authoritative Parenting Questionnaire: APQ)를 활용한 한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른 APQ 응답 수준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Uji, Sakamoto, Adachi, & Kitamura, 2014).

자녀 성별과 부모양육태도의 문제는 단순히 한 문화권과 시대에 국한하여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서두에서 주지하였듯이 부모의 역할과 성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ndendijk 등(2016)이 실시한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성별차에 따라 보여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 경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Web of Science, ERIC 등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부모 양육에 관한 관찰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자발적-지지적 양육태도가

아들을 양육할 때 유의하게 자주 나타난 반면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오히려 딸에게 현저하게 드러났다.

요컨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문화적, 시대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현 시대 한국 상황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시대, 문화적 배경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아버지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예측케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분석과 보고가 필요해 보인다.

아버지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부모의 성격특성은 행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부모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애 외, 2002; Schofield, Conger, Donnellan, Jochem, Widaman, & Conger, 2012). 특히 아버지의 성격은 최근 대두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안수미 외, 2013), 자녀의 성장과 발달 문제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결정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련의 특성과 경향으로서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Meserandino, 2013). Phares(2003)은 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개인적 성격과 관련한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도구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Jung의 이론에 근거한 MBTI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인데 인간의 행동이 걸으려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 내부에는 일정한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김세영, 1999). 오수희(1989)는 MBTI에 기반한 부모의 성격유형이 자녀를 기르는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 정서적 관계 등 자녀의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에니어그램을 이용한 연구로 성격유형을 힘의 중심에너지에 따라 가슴형(마음중심), 머리형(생각중심), 배형(행동중심)으로 나눈다. 총 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개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이송이, 2007). 윤서연(2016)은 에니어그램을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자영(2003)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다. 셋째는 아버지의 성격특성을 Big Five Model을 통해 측정된 연구도 있다. Big Five Model에서는 성격을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다섯 가지 아버지의 성격특성은 유아의 긍정적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만이 유아의 부정적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귀옥, 김영희,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개방적 성격이 자녀의 부정적 사회행동에 차이를 낳는다고 보고한 Browne 등(2012)의 연구와 비슷하지만,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성격을 부모역할과 연결 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아버지의 개인적 성격에 대한 위의 논의와 달리 사회적으로 부여된 아버지의 성격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아버지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가부장제를 통해 형성되어진 권위주의 성격을 들 수 있다(황연정, 1999).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경환(1989)은 Adorno(1950)의 권위주의 성격척도(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문항 중 한국 상황에 맞는 문항만을 문항 분석을 통해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로 선별하였다.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대성주의, 미신과 고정 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의 9개 하위요인들로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복종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안정성이 낮게 나타나는 등 아버지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양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에 반영되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황연정, 1999).

성격을 정의하는 다른 방식으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다. 페르소나는 그리이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할 때 그 가면의 인물 성격에 맞추어 배우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심리학용어이다(심혜숙, 박순환, 2004). 페르소나는 전체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한 인간처럼 어느 정도 자율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Bogart, 1994) 개인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대인관계를 할 때 보이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행동은 페르소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페르소나의 극적, 놀이적 성격은 실제로 자녀-아버지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기간 동안 이혼 가정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배트맨, 스파이더맨, 수퍼맨과 같은 “영웅(super-hero)” 페르소나를 활용한 바 있다. 영웅이라는 단어의 남성 우월 주의적 의미를 지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페르소나의 극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녀들과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영웅이 된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으며, 친근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Kay, 2006).

기존 연구물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성격 검사들은 선천적 기질을 중심으로 선호도를 알아보거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포괄적인 성격 검사이기 보다 특정 부분을 다루는 검사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페르소나 성격 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성격을 알아본 검사도구이다. 특히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페르소나를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격 특성 분포를 살펴보고 나아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버지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함으로써 지향하거나 지양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 특히 아버지 양육의 수혜자인 자녀의 시각을 통해 아버지 페르소나 성격을 조사하여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토대로 한 기존 연구의 미흡한 객관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페르소나 성격을 자녀의 시각에서 알아보고, 아버지의 페르소

나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양육행동과 아버지 페르소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페르소나와 아버지 양육행동의 상관은 어떠한가?
3. 아버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소재 3개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남 234, 여 188)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페르소나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총 422명으로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부모양육행동 설문지와 페르소나 설문지를 배부하고 간단한 주의 사항을 읽게 한 후에 자기 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대상학교의 교수와 강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실시 시간, 소요시간,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실시와 수거는 강의를 진행하는 담당 교수와 강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아버지 페르소나

본 연구에서는 박순환, 심혜숙(2006)이 기존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수정판으로 개발한 9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원래 Stone 등(1989)이 발견한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각된 9가지의 주요 페르소나를 한국사회에 맞는 8개의 페르소나를 추출하고 여기에 한국 성인의 페르소나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체면페르소나를 더하여 9개로 구성한 박순환(2005)의 측정도구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순환, 심혜숙(2006)의 97개 문항에서 주어 “나는”을 “아버지는”으로 변경하고 자기보고식 측정지를 타인 지각식 측정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참여 대학생들은 각 문항 기술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아주 다르다(0점)”에서 “아주 비슷하다 (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페르소나 하위 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보호통제 페르소나의 경우 총 13문항으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고자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내적 일치도 .88을 나타냈으며, 비판적인 페르소나의 경우 “아버지는 자주 스스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총 10문항에 내적일치도 .90을 성취지향 페르소나의 경우는 8문항에 “아버지는 주위의 친구나 동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89의 내적 일치도를 체면지향 페르소나의 경우 “아버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9문항에 .88의 내적 일치도,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기색이면 쉽게 상처를 받곤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총 12문항에 내적

일치도 .89를 나타냈으며, 배려지향 페르소나의 경우 “아버지는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에 마음을 더 편안해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총 13문항에 내적일치도 .88,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는 “아버지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12문항에 .90을 강함 추구 페르소나는 10문항에 “아버지는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내적일치도 .89를, “아버지는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은 내용의 완벽지향 페르소나의 경우는 총 10문항에 내적일치도 .89를 나타냈다.

하위척도별 평균값을 활용한 최종검사지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도구 전체에서 .90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아버지 양육 행동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문정(2003)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참여 대학생들은 “아주 다르다(0점)”에서 “아주 비슷하다(3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총 30개 문항의 각 하위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0점에서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버지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에는 하위문항별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3개의 하위 요인별로 본 연구 자료수집 결과 얻은 내적 합치도는 도구전체 Cronbach α 는 .70, 하위요인인 온정·수용 행동은 .91, 허용·방임 행동은 .76, 거부제재행동은 .88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 행동에는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와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내신다”와 같은 문항이 온정·수용 행동 범주에 들어간다. 허용·방임 행동에는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과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와 같은 문항이 허용·방임 행동에 해당한다. 거부·제재 행동에는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침해적 개입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신다” 등이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 및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SPSS WIN 21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측정변인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연구문제 1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연구문제 2의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 아버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페르소나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p = .042$)와, 허용·방임 양육행동($p = .049$)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 아들보다 아버지에게서 민감한 페르소나 성격을 더 많이 지각하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 전체가 가장 많이 지각하는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M = 2.000$)이고 그 다음이 체면지향 페르소나, 보호통제,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각하는 페르소나는 비판적인 페르소나($M = .898$)였다.

자녀가 각각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 페르소나는 전체일 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며 완벽지향 페르소나(남: $M=1.989$, 여: $M=2.012$)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고 가장 적게 지각하는 것은 비판적인 페르소나(남: $M = .871$, 여: $M = .925$)였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 전체로는 온정·수용 양육행동($M = 1.767$)이 가장 많이 인식되었으며 허용·방임($M = 1.130$), 거부·제재 양육행동($M = .616$)순이었다. 자녀성별에 따른

표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에 대한 *t*검정 결과 (남 $n=234$, 여 $n=188$)

		전체		남		여		<i>t</i>	유의확률 (양쪽)
		<i>M</i>	<i>SD</i>	<i>M</i>	<i>SD</i>	<i>M</i>	<i>SD</i>		
페르 소나	보호	1.749	.549	1.751	.551	1.746	.551	.097	.923
	비판	.898	.627	.871	.580	.925	.677	-.867	.386
	성취	1.299	.632	1.308	.574	1.285	.699	.363	.717
	체면	1.779	.569	1.739	.558	1.827	.582	-1.591	.112
	민감	1.072	.618	1.015	.528	1.138	.709	-2.040	.042*
	배려	1.603	.603	1.604	.592	1.599	.618	.088	.930
	유희적	1.703	.612	1.664	.587	1.750	.643	-1.432	.153
	강함	1.595	.606	1.585	.569	1.605	.650	-.340	.734
	완벽	2.000	.659	1.989	.647	2.012	.676	-.346	.729
양육 행동	온정·수용	1.767	.669	1.783	.691	1.752	.641	.484	.629
	허용·방임	1.130	.524	1.087	.539	1.188	.501	-1.973	.049*
	거부·제재	.616	.549	.628	.537	.593	.556	.657	.511

* $p < .05$

차이 없이 아버지에게서 온정·수용의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의 전체상관분석은 표 2에 제시되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분석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경우 완벽지향 페르소나($r = .448$)와 유희적 페르소나($r = .415$)가 가장 상관이 높으며 다음으로 배려지향 페르소나($r = .311$)와 보호통제 페르소나($r = .295$)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05$)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27$)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비판적인 페르

소나($r = .264$)와 가장 상관이 높으며 다음으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254$), 유희적 페르소나($r = .140$)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완벽지향 페르소나($r = -.128$)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경우는 허용·방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54$)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287$),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44$)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129$)와 보호통제 페르소나($r = -.106$)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에는 서로 다른 상관을 보였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를 제외한 모든 페르소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완벽지향 페르소나($r = .546$)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542$)이고 비판적

표 2.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 $n=234$, 여 $n=18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보호통제												
2. 비판적인	.258**											
3. 성취지향	.361**	.449**										
4. 체면지향	.721**	.301**	.575**									
5. 민감한	.332**	.699**	.423**	.383**								
6. 배려지향	.656**	.310**	.320**	.566**	.427**							
7. 유희적	.386**	.083	.336**	.377**	.248**	.499**						
8. 강함추구	.546**	.396**	.680**	.697**	.423**	.401**	.339**					
9. 완벽지향	.674**	.084	.447**	.651**	.157**	.497**	.422**	.495**				
10. 온정·수용	.295**	-.205**	.023	.180**	-.127**	.311**	.415**	-.015	.448**			
11. 허용·방임	.030	.264**	.116*	.085	.254**	.137**	.140**	-.078	-.128**	.002		
12. 거부·제재	-.106*	.354**	.228**	.043	.287**	-.080	-.129**	.244**	-.095	-.496**	.065	

* $p < .05$ ** $p < .01$

표 3.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 $n=234$)

	보호	비관	성취	체면	민감	배려	유희적	강함	완벽
온정-수용	.436**	-.188**	.130*	.305**	-.050	.424**	.542**	.165*	.546**
허용-방임	.042	.397**	.162*	.078	.378**	.155**	.116	.114	-.089
거부-제재	-.111	.384**	.242**	.023	.316**	-.046	-.143*	.211**	-.147*

* $p < .05$ ** $p < .01$

딸이 지각한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여 $n=188$)

	보호	비관	성취	체면	민감	배려	유희적	강함	완벽
온정-수용	.110	-.216**	-.089	.029	-.199**	.172*	.272**	-.220**	.330**
허용-방임	.016	.121	.077	.082	.131	.120	-.158*	.038	-.183*
거부-제재	-.108	.310*	.206**	.064	.266**	-.132	-.155	.276**	-.042

* $p < .05$ ** $p < .01$

인 페르소나($r = -.188$)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97$)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378$)와 성취지향 페르소나($r = .162$), 배려지향 페르소나($r = .155$)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경우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84$),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316$)와 성취지향 페르소나($r = .242$),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11$)와 정적상관을 완벽지향 페르소나($r = -.147$)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143$)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녀가 딸인 경우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완벽지향 페르소나($r = .330$),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272$), 배려지향 페르소나($r = .172$)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20$)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1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9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페르소나는 없고 완벽지향 페르소나($r = -.183$)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158$)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19$),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7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266$), 성취지향 페르소나($r = .206$)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버지 페르소나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표 4, 5, 6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 페르소나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페르소나의 설명 총량은 온정·수용이 41%, 허용·방임이 15%, 거부·제재가 26% 정도였다. 회귀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 값은 .10보다 크고 VIF는 10보다 작아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r = .330$)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272$)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20$)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1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9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수용 양육행동과는 완벽지향 페르소나($r = .330$),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272$), 배려지향 페르소나($r = .172$)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20$)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1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9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페르소나는 없고 완벽지향 페르소나($r = -.183$)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158$)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19$),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7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266$), 성취지향 페르소나($r = .206$)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r = .330$)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272$)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20$)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1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9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수용 양육행동과는 완벽지향 페르소나($r = .330$),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272$), 배려지향 페르소나($r = .172$)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20$)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21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19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페르소나는 없고 완벽지향 페르소나($r = -.183$)와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r = -.158$)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비판적인 페르소나($r = .319$), 강함 추구 페르소나($r = .276$),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r = .266$), 성취지향 페르소나($r = .206$)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4. 아버지 페르소나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23)

독립변인 (페르소나)	온정 · 수용					허용 · 방임					거부 · 제재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보호	.092	.081	.075	1.133	.258	-.011	.076	-.011	-1.43	.887	-.255	.074	-.255	-3.435	.001*
비판	-.105	.061	-.098	-1.726	.085	.144	.057	.172	2.535	.012*	.186	.055	.213	3.364	.001*
성취	-.015	.061	-.015	-.253	.801	.034	.057	.041	.598	.550	.038	.056	.044	.684	.494
체면	-.060	.081	-.015	-.738	.461	.141	.076	.154	1.870	.062	-.023	.074	-.024	-.310	.757
민감	-.155	.062	-.143	-2.505	.013*	.059	.058	.070	1.024	.306	.141	.057	.159	2.489	.013*
배려	.158	.063	.142	2.509	.012*	.062	.059	.071	1.045	.297	-.082	.058	-.090	-1.431	.153
유희적	.333	.051	.305	6.562	.000*	.146	.048	.171	3.079	.002*	-.132	.046	-.147	-2.834	.005*
강함	-.299	.068	-.270	-4.387	.000*	-.058	.064	-.067	-.911	.363	.285	.062	.314	4.570	.000*
완벽	.408	.059	.402	6.878	.000*	-.270	.056	-.339	-4.853	.000*	-.016	.054	-.019	-.291	.771
$R^2(\text{adj}, R^2) = .406(.393)$					$R^2(\text{adj}, R^2) = .153(.134)$					$R^2(\text{adj}, R^2) = .262(.246)$					

* $p < .05$

표 5. 아버지 페르소나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남 n=234)

독립변인 (페르소나)	온정 · 수용					허용 · 방임					거부 · 제재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보호	.218	.115	.174	1.887	.060	-.040	.109	-.041	-.365	.716	-.0264	.103	-.271	-2.551	.011*
비판	-.181	.089	-.152	-2.036	.043*	.240	.084	.258	2.844	.005*	.208	.080	.225	2.608	.010*
성취	-.037	.089	-.031	-.418	.676	-.003	.084	-.003	-.033	.974	.123	.080	.132	1.550	.123
체면	-.122	.115	-.099	-1.064	.289	.085	.109	.088	.778	.437	-.006	.103	-.007	-.062	.951
민감	-.034	.101	-.026	-.341	.733	.147	.096	.144	1.540	.125	.145	.090	.142	1.601	.111
배려	.152	.086	.130	1.763	.079	.066	.081	.072	.805	.422	-.047	.077	-.052	-.615	.539
유희적	.433	.075	.368	5.757	.000*	.111	.071	.120	1.552	.122	-.191	.067	-.209	-2.833	.005*
강함	-.168	.095	-.138	-1.768	.078	-.039	.090	-.041	-.430	.668	.249	.085	.264	2.922	.004*
완벽	.298	.090	.279	3.322	.001*	-.146	.085	-.175	-1.715	.088	.030	.080	.036	.374	.709
$R^2(\text{adj}, R^2) = .456(.434)$					$R^2(\text{adj}, R^2) = .198(.165)$					$R^2(\text{adj}, R^2) = .276(.247)$					

* $p < .05$

=6.878, $p = .000$),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 = 6.562$, $p = .000$), 배려지향 페르소나($t = 2.509$, $p = .012$)이며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완벽지향 페르소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배려지향 페르소나 순으로 온정 · 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강함 지향 페르소나($t = -4.387$, p

표 6. 아버지 페르소나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여 $n=188$)

독립변인 (페르소나)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보호	-.042	.114	-.036	-.367	.714	.020	.107	.022	.190	.849	-.286	.109	-.283	-2.617	.010*
비판	-.028	.084	-.029	-.331	.741	.038	.079	.051	.479	.633	.193	.081	.234	2.381	.018*
성취	-.022	.085	-.024	-.260	.795	.102	.079	.142	1.283	.201	-.077	.081	-.097	-.944	.346
체면	-.001	.114	-.001	-.011	.991	.213	.107	.247	1.995	.048*	-.021	.109	-.022	-.193	.847
민감	-.198	.077	-.219	-2.572	.011*	.004	.072	.006	.057	.954	.170	.074	.217	2.294	.023*
배려	.128	.093	.124	1.384	.168	.061	.087	.075	.702	.483	-.165	.089	-.183	-1.848	.066
유희적	.260	.068	.261	3.798	.000*	.127	.064	.162	1.972	.050*	-.077	.066	-.089	-1.164	.246
강함	-.439	.095	-.445	-4.619	.000*	-.077	.089	-.100	-.864	.389	.319	.092	.373	3.485	.001*
완벽	.503	.080	.531	6.255	.000*	-.351	.075	-.474	-4.654	.000*	-.013	.077	-.016	-.168	.867
$R^2(\text{adj}, R^2)=.414(.384)$					$R^2(\text{adj}, R^2)=.156(.113)$					$R^2(\text{adj}, R^2)=.278(.241)$					

* $p < .05$

=.000)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t = -2.505, p = .013$)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 = 3.079, p = .002$)와 비판적인 페르소나($t = 2.535, p = .012$)나 완벽지향 페르소나($t = -4.853, p = .000$)이며 표준화 계수에 따르면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와 비판적인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완벽지향 페르소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거부·제재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강함 추구 페르소나($t = 4.570, p = .000$), 비판적인 페르소나($t = 3.364, p = .001$),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t = 2.489, p = .013$) 보호통제 페르소나($t = -3.435, p = .001$), 유희적 페르소나($t = -2.834, p = .005$)이다. 강함 추구 페르소나, 비판적인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 영향을 보호통제 페르소나와 유희적 페르소나와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페르소나의 중다회귀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9개의 페르소나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46%,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20%,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28% 정도로 설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판적인 페르소나($t = -2.036, p = .043$),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 = 5.757, p = .000$), 완벽지향 페르소나($t = 3.322, p = .001$)이다.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다음에 완벽지향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판적인 페르소나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비판적인 페르소나($t = 2.844, p = .005$)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경우 보호통제 페르소나($t = -2.551, p = .011$), 비판적인 페르소나($t = 2.608, p = .010$), 유희적 페르소나(t

$= -2.833, p = .005$), 강함 추구 페르소나($t = 2.922, p = .004$)가 영향을 미친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르소나는 강함 추구 페르소나와 비판적인 페르소나이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르소나는 보호통제 페르소나와 유희적 페르소나이다.

자녀가 딸인 경우 9개 페르소나의 중다회귀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9개의 페르소나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41%,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16%,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28% 정도로 설명되고 있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t = -2.572, p = .011$),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 = 3.798, p = .000$), 강함 추구 페르소나($t = -4.619, p = .000$), 완벽지향 페르소나($t = 6.255, p = .000$)이다.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완벽지향 페르소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함 추구 페르소나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체면지향 페르소나($t = 1.995, p = .048$),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 = 1.972, p = .050$), 완벽지향 페르소나($t = -4.654, p = .000$)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지향 페르소나와 유희적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완벽지향 페르소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페르소나는 보호통제($t = -2.617, p = .010$), 비판적인($t = 2.381, p = .018$), 민감한 어린이($t = 2.294, p = .023$), 강함 추구($t = 3.485, p = .001$) 페르소나이며 강함 추구 페르소나, 비판적인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보호통제 페르소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논 의

한국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가장 많이 지각하는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와 체면지향 페르소나였다. 완벽지향 페르소나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의 일부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며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체면지향 페르소나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얼굴로 명예나 지위, 신분 등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최상진, 2001) 페르소나로 아버지의 체면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경향을 보여준다.

대학생 자녀 전체가 가장 많이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으로 이는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대체로 온정·수용적이라는 연구(김문정, 2003)와 같은 결과로 대체적으로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의 양육행동보다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자녀 전체의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완벽지향 페르소나는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부적으로 관련되며, 강함 추구 페르소나는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잘 하고자 할 때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판적인 페르소나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일 경우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페르소나인 경우나 자

신이 즐겁게 노는 것을 중요시 하는 유희적 페르소나의 경우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경향이 있고 약하게 보이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함 추구 페르소나 성향이 높을 때 아버지들은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를 보여준다는 연구(전현진, 김영희,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성별에 따라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가 딸인 경우 아들보다 아버지에게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지각이 성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Uji, Sakamoto, Adachi, & Kitamura, 2014)와 양육행동의 기대와 행동 간에도 자녀의 성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한(박영애, 인영옥, 1998)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자녀가 딸인 경우 민주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취한다는 연구(연미희, 1998),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공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나래, 신나나, 2014),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과 다름을 보고한 연구(김지애, 2012)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딸이 아들보다 민감성과 연약성이 높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를 더 많이 지각한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더 친밀함을 높이려는 아버지 심리적 요소가 페르소나 성격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편 딸들이 민감성이 높아 아버지에게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를 더 많이 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양육행동에서는 자녀의 요구를 과도하게 응해주는

허용·방임형 양육행동을 딸들이 더 많이 보고하였는데 이는 부모는 이성의 자녀에게 더 관대하게 대한다는 연구(정매자, 1999)와 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덜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한다는 연구(김문정,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들에게는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을 요구하고 딸에게는 애정적이고 친절하길 바라는 기대(최경숙, 2000)가 자녀가 딸인 경우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에 아들과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과 딸 자녀 모두에게 아버지의 완벽 지향 페르소나는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딸들은 완벽지향 페르소나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간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조만선, 199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김귀옥, 김영희, 2015) 아들에게 더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교육한다(공정희, 1998)고 보고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아들과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딸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아버지 성격을 가졌다고 보여 질 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관계성이 높은 반면 아들에게는 즐겁고 놀 줄 알며 자유로운 성격 특성을 보일 때 더욱 온정·수용적인 양육행

동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녀가 아들일 경우 아버지의 비판적인 페르소나 성격이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딸의 경우는 완벽지향 페르소나가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부적으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들의 경우 자기 비난과 자기비판을 많이 하는 아버지의 비판적인 페르소나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체면지향적인 페르소나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아들과 딸에 대해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달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아들이 느끼기에 비판적인 페르소나의 아버지들이, 딸이 느끼기에는 체면지향적인 아버지들이 허용과 방임적 양육행동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차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관된다고 보여 진다. 즉 체면을 차리는 아버지들은 의식적으로 성차를 두지 말아야한다는 현대적 합의를 실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을 것이고 이는 다시 “딸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딸에게 비춰지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들의 역할이 혼재되어 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석호, 이사라, 2012). 또한 다른 해석으로 오늘날 아버지들이 예전과 다른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양육행동을 배울 기회가 없어 페르소나가 비판적이거나 체면지향적일수록 자녀 양육행동에서 한발 물러서서 허용과 방임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강함 추구 페르소나 성격이 지각될 때 거부·제재 양육행동으로 아들과

딸 모두에게 인식되었다. 특히 자녀가 딸일 경우 그 관련성이 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함 추구 페르소나는 강함과 주도성을 중시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로서 수동적이거나 약해서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페르소나이다(박순환, 2005). 강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스스로가 설정한 절대적인 행동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통제하고 복종을 강요하며(천희영, 1998) 이와 같은 페르소나 성격을 지각한 자녀들은 화를 내거나 불만스러운 양육행동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행동에 대한 가치나 신념은 변화되고 있지만 사회의 경쟁 구조 속에서 바람직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여전히 여러 변인들로 하여금 실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로 인한 양육행동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성격을 페르소나 검사를 통해 알아보고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성별 페르소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페르소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차이, 성격-양육행동 관련성 차이를 논의해 왔던 기존 선행 연구를 아버지 중심의 논의로 확장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로 부모의 시각으로 측정된 부모의 성격,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기존의 연구를 자녀의 시각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페르소나 성격특성이 아버지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결정에 자녀의 성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변화되는 요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상담

이나 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페르소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설계와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결과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한 아버지의 페르소나 성격과 양육행동은 아버지 본인이 지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긍정적 정서의 표현 수준이 낮아(홍영미, 성현란, 2012)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기에 서툴러 이를 자녀는 아버지의 의도와 달리 왜곡하여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스스로 지각한 페르소나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페르소나는 사회와 개인 사이에서의 타협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나(이태동, 1982) 사회적 역할은 물론 가족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아버지의 페르소나를 여러 변인들과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성격을 표현하는 아홉 개 페르소나 검사지에 의한 양적 연구에 그쳐 아버지의 페르소나 성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질적 연구와 함께 아버지의 페르소나 성격과 자녀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과 관련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공정희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

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례 (2011). 일·생활 균형의 철학과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현대사회과학 연구, 15(2011), 1-18.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김귀옥, 김영희 (2015). 아버지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9(2), 45-57.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영 (1999). MBTI 성격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에 등 (2012).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특성의 관련성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51-173.

김희주 (1996).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 (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민경환 (1989). 권위주의성격과 사회적 편견-대 학생집단을 정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박순환 (2005). 다면 페르소나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순환, 심혜숙 (2006). 다면 페르소나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7(2), 231-257.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

-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영애, 인영옥(1998).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이상적 양육행동과 실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연구. 교육연구, 6(1), 81-101.
-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정, 진미정 (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4(4), 341-361
- 심혜숙, 박순환 (2004). 심리유형과 페르조나의 발달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1, 1-17.
- 안수미, 이기영, 이승미 (2013).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연미희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111-122.
- 오수희 (1989).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 29-72.
- 윤서연 (2016).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반한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서영 (199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호, 이사라 (2012).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기의 딸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29-48.
- 이성희, 한은주 (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29.
- 이자영 (2003). 자녀의 애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이 (2007).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초한 어머니용 유아양육태도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태동 역 (1982). 칼 융의 심리학(원저 Jolande Jacobi, The Psychology of C. G. Jung: An Introduction with Illustrations). 성문각.
- 전현진, 김영희 (2013).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7(2), 31-44.
- 정매자 (1999).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만선 (1996).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8).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대한가정학회지, 36(8), 21-33.
- 최경숙 (2000). 발달심리학-아동·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최나래, 신나나 (2014).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91-116.
-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 채진영, 권혜진 (2010).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89-195.

- 한 나, 이승연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가족 삼각화와 불안정 기반 자기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81-203.
- 홍영미, 성현란 (2012). 대학생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35-48.
- 황연정 (1999).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studies in prejudice (vol. 1)*.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rgart, V. (1994). Transcending the dichotomy of either "subpersonalities" or "an integrated unitary self".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4(2), 82-89.
- Browne, D. T., Meunier, J. C., O'Connor, T. G., & Jenkins, J. M. (2012). The role of parental personality traits in differential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4), 542.
- Endendijk, J. J., Groeneveld, M. G., Bakermans-Kranenburg, M. J., & Mesman, J. (2016). Gender-differentiated parenting revisited: meta-analysis reveals very few differences in parental control of boys and girls. *PLoS One*, 11(7), e0159193.
- Hyun, J. H., Nakazawa, J., Shwalb, D. W., & Shwalb, B. J. (2016). Parents and childcare in South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In Geilen, U.P. & Roopnath, J. L. (eds.), *Childhood and adolescence: Cross-cultural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p. 177-208). Santabarbara, CA: ABC-CLIO.
- Kay, T. (2006). Editorial: Fathering through leisure. *Leisure Studies*, 25(2), 125-131.
-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Wiley.
- Luoma, I., Puura, K., Mantymaa, M., Latva, R., Salmelin, R., & Tamminen, T. (2013). Fathers' postnatal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an exploration of links with paternal, maternal, infant and family factor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7(6), 407-413.
- Meserandino, M. (2013). 최신연구에 기초한 성격심리학. (정영숙, 조옥귀, 조현주 역). 서울: 시네마프레스.
- Meuwissen, A. S. & Carlson, S. M. (2015). Fathers matter: The role of father parenting i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0, 1-15.
- Phares, J. E. (2003). 성격심리학[Introduction to Personality]. (홍숙기 역). 서울: 박영사.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sources, and consequential.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John Wiley. pp. 222-271.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amuels, A. (2016). *The plural psyche: Personality, morality and the father*. Abingdon, OX: Routledge,
- Schofield, T. J., Conger, R. D., Donnellan, M. B., Jochem, R., Widaman, K. F., & Conger, K. J. (2012). *Parent personality and posi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positive adolescent personality development over time*. Merrill-Palmer quarterly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58(2), 255.
- Seçer, Z., Gülay Ogelman, H., & Önder, A. (2013).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the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1), 63-74.
- Smulders, R. (2014). *The effect of experienced maltreatment on parental interaction with adolescent/young adult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pathology and personality*. Master's thesis, Leiden University.
- Stone, H., & Stone, S. (1989). *Embracing our selves*. Novato, C.A: New World Library.
- Uji, M., Sakamoto, A., Adachi, K., & Kitamura, T. (2014). The impact of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in Japan: Focusing on parent and child gend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2), 293-302.
- Zahn-Waxler, C, Shirtcliff, EA, & Marceau, K. (2008).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Gender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75-303.
- 1차원고접수 : 2016. 10. 14.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9.
최종게재결정 : 2016. 11. 29.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Persona and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Jo, Soon-Ok

Chae, Soo Eu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persona and parenting behavior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Korean college students. Girls' fathers demonstrated a Vulnerable Child persona and permissive-neglectful parenting behaviors more often than boy's fathers did. For boy's fathers, the Playful Child persona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warm-accepting parenting behaviors. For girl's fathers, the Perfectionist persona was related to warm-accepting parenting behaviors. Boy's fathers with the Critic persona tended to show permissive-neglectful parenting behaviors. Girl's fathers with the Facer persona tended to demonstrate permissive-neglectful parenting. Fathers with the Power persona tended to show rejection behaviors.

Key words : Father, persona, father parenting behavior, Korean college student, gender difference